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성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양동욱

청소년 자위행위 그 두려움과 진실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자위가 몸에 정말 나쁜가요?", "자위를 많이 하면 어른이 된 후 정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자위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몸에 무리가 없나요?" 대다수 질문이 자위행위에 관한 불안과 걱정이다.

청소년, 성인, 노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자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로부터 성적 쾌감이나 만족을 경험한다. 하지만 육체적 쾌감이 뒤따라오는 어두운 그림자, 즉 "몸에 해롭지 않을까?" 혹은 "내가 왜 이려고 있는 걸까?"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자위와 관련된 두려움과 죄의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자위를 많이 하면 신체 쇠약, 마비, 무기력, 중풍, 황달, 실명, 천식, 간질, 히스테리, 조루증, 성병, 자궁암, 정신 이상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이것은 스위스 의사 티소(Tisso)가 1758년에 발표한 자위행위에 관한 논문(on Onanism)의 주요 내용이다.

영문 제목의 오나니즘은 남자의 자위행위를 일컫는 말로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오난은 형이 사망하자 유

대교 풍습에 따라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아내와의 성교를 거부하거나 질의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위행위로 성욕을 해결한다.

오난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이후 성경 학자들은 오난이 신의 명령인 종족보존과 상관없는 정액낭비 곧 자위를 한 탓에 급사했다고 해석하였다. 자위는 죄를 짓는 행위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난이기 때문에 자위행위를 오나니즘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티소 역시 진찰 과정에서 환자들이 지나치게 자위행위에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간의 모든 신체질환의 근원은 자위행위'라고 규정짓고 자위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티소의 주장은 18세기 서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자위행위' 하면 곧바로 초점이 없어진 게슴츠레한 눈, 반쯤 벌어진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침, 그리고 무기력하고 정신이 나간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게 되고, 부모들의 불안과 공포를 한 방에 날려 줄 기성천외한 '자위행위 방지 기구'들이 19세기에 발명되기에 이른다.

잠을 자는 동안 음경이 발기되는 것을

자위행위의 욕구로 이해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남자아이의 음경에 감칠 고리를 씌워서 수면 중 발기가 되면 날카로운 강철 가시에 찔리게 하였다. 또 음경에 주머니를 씌워 발기 상태를 탐지하기도 했는데, 만약 수면 중 아이의 음경이 발기되면 곧바로 부모의 방에 경고를 울리게 하였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에게 팬티처럼 생긴 정조대를 입히기도 하였다. 예로, 소변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린 잠옷이나 가족으로 된 음경 주머니에 남자의 음경을 집어넣고 허리띠를 매어서 아이 스스로 풀 수 없도록 했다. 어떤 것은 음경이 앞으로 튀어나면 장치가 작동하여 전기충격을 가해지는 장치도 있었다.

아이의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내 아이만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머물러 있길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위행위는 '나쁜 것'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성 충동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쾌락에

중독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눈을 피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 충동을 관리할 힘이 필요하다. 성 충동을 느낄 때 자위행위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충동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성적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 어머니가 중학생 자녀의 자위를 목격한 후 배신감과 분노에 차서 상담을 요청했다.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자녀의 성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어머니에게 슈퍼마켓에서 질이 좋은 문휴지를 여러 개 사서 아이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주문했다.

책상에 수북이 쌓인 화장지를 보고 "엄마, 저거 다 뭐예요?"라고 아이가 묻자, 그 어머니는 속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장지가 참 많이 필요한 나이다. 네 몸을 위해서 가능한 좋은 화장지를 쓰고 뒷마무리는 깨끗이 해라."라고 말했다. 자녀의 성욕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부모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데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원전사고와 도덕성



김성근

지난 5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42년 만에 모두 멈췄다.

지난해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레벨 7등급의 사고로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방출됐고 아직도 복구에 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을 주도해온 사람들은

고 위험도의 사고는 100만 분의 1에 확률을 주장하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위와 같은 주장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한국과 일본 할 것 없이 원전과 관련된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언론들은 원전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비판에 나서지 않자 호베 해 왔고 나아가 자신들도 모르는 거짓 안전성을 홍보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시설에는 유사시 환경과 인간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겹겹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이 장치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원자로가 태생적으로 내재한 위험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런 위험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어느 원자로도 불시에 발생하는 기술적 에러, 인간의 실수 또는 자연재해 등의 조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격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다.

지난 3월 9일 고려원전 1호기에서 외부전원을 차단했을 때 냉각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하는 비상전원장치가 무려 12분간이나 전원이 완전히 중단됐고 이것이 만약 더 지속하였을 경우 냉각수 순환 기능이 중단된 채, 원자로가 달아오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녹아내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이 사고가 100여 명이나 되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임직원이 약속이나 한 듯 은폐에 동의했

고, 한수원 사장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조차도 한 달이나 지나도록 사고를 전혀 몰랐다는데 있는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짝퐁 부품을 사용하는 등 납품 관련 비리가 잇따르면서 원전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원전 사고와 도덕성과의 연관관계는 어떠할까?

물론 고리 1호기의 비상전원 미작동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짝퐁 부품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원전관리에 원칙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늘 그림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주장대로 표현해 보자면 겹겹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의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원전관리에 겹겹이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원전관리자들의 원칙에 대한 도덕성은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원불교 동양교당 교무)

기고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



배양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자가 꾸릴 내각에 "한국인 입양아 2명 프랑스 장관 되다"라는 기사가 언론지상에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 사회당 인터넷·디지털 전문가인 플뢰르 펠트랭(38·한국명 김종숙)과 프랑스 녹색당의 2인자인 장 뱅상 플라세(43·한국명 권오복) 상원의원으로 경이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펠트랭은 1973년 한국에서 태어나 6개월만에, 플라세

는 1968년 태어나 7세인 1975년 프랑스로 입양되었다. 이들이 떠날 당시 우리나라는 자개발국가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던 때였다. 이런 슬픈 사연을 안고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입양되어 간 나라에서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5월 11일은 정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이다. 5월 11일에는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올해 7회째인 입양의 날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입양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8월 5일부터는 아

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새로이 시행되며, 법 명칭도 '입양특례법'으로 바뀐다.

'입양특례법'의 핵심은 최소한 1주일간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입양숙려제' 도입을 들 수 있다. '입양숙려제'에 따라 미혼모 등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된다. 입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 받고 입양 전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1위 국가, 영아 수출국이었던 부끄러운 오명을 갖고 있었다. 1958년 국내입양이 시작된 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2004년도에는 1,641명까

지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1548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입양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입양 후 자녀교육비 등 양육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남자를 기피하고 여아만을 선호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혼모지만 자녀를 키우겠다는 싱글맘이 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내가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입양이 아니다. 아이가 필요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입양의 참 뜻일 것이다.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 대신 '가슴 아파서' 아이를 낳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가 절실하다.

아이가 없는 불임가정에서는 꼭 내 핏줄만 고집하는 것보다 입양을 선택하면 어떨까? 미래의 추억이 될 우리 아이들이 더 이 세 가족을 잊지 못해 눈물짓는 일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가 자리하는 밝은 사회를 기대해 본다.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내일 개막 '지구촌 축제'로

역사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내일 개막된다. 12일부터 8월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경제·문화올림픽이다. 93일간 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 여수로 쏠리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생산 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12조2천328억 원에 달하고, 고용은 7만883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외국인 55만 명을 포함해 1000만 명이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국 105개국에, 국제기구가 10개에 이른다.

박람회장을 비롯한 전시관과 각종 부대 시설이 모두 완료됐으며 도로와 시가지 등도 정비를 마쳐 손님맞이만 남겨놓고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볼거리는 물론이고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바다 위에서 전개되는 분수 레이저, 홀로그램 쇼가 펼쳐지는 빅오(Big-O), 세계 최대 파이프로프인 스카이다이브, 아시아 최대 아쿠아리움 등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105개국이 만든 국제관에서 전 세계의 진귀한 해양보물을 만날 수 있고, 주요 기업들이 세운 전시관에는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시설들이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한다.

한류스타와 각종 민속공연 등이 펼쳐지는 문화예술행사도 하루 90회씩 총 8000회가 열린다. 환상의 향연이 펼쳐질 여수는 지금 지구촌 축제로 설레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박람회조직위, 전남도, 여수시는 행사 자체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람회 기간 바짝 긴장하고, 항시 비상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속히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부족한 숙박시설 보안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민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며, 바가지 요금 자제 및 승용차 안타기 등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교통정책과 전시관 예약 시스템 불통, 저조한 입장권 예매, 일부 국가관 개장 차질 등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 마련은 필수다.

따라서 정부와 박람회조직위의 역할 발휘, 국민 관심 및 시민의식 고취, 성숙한 관람문화 등은 선결 요건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격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이며, 반도국가 대한민국과 여수가 해양국가,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만 성공 개최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완도 국제항 편의시설 흥물로 받치다니

국제관광·무역항인 완도항 일부 시설이 흥물로 받치되고 있다. 매일같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비박이 시설이 부족하고, 천장 비닐도 찢긴 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완도항은 지난 1981년 국제무역항으로 승격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수산물 수출 등으로 이용객이 날로 늘고 있다. 현재 완도-제주를 오가는 '블루나래호'를 비롯해 청산도행 카페리 등이 운항하며 하루 수천~수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청산도가 국제슬로시티로 널리 알려져 주말이면 관광객만 하루 6000여 명에 달한다. 또 장보고축제가 매년 성공리에 개최돼 완도항의 수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편의시설 관리는 엉망이다. 더욱이 항만관리 기관이 관내에 있음에도 이용객 서비스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엄연한 업무태만인 셈이다.

승·하선시 이용하는 300m 길이의 비박이 천장 비닐이 찢어져 비를 가릴 수 없고, 철 기둥도 녹슨 채여서 녹물이 옷에 묻는 등 민원마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완도항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양관광과 청정 수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도 그에 못지않다. 당국은 완도항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국제항에 걸맞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 박람회장 바깥에 있는 인류의 모든 성과물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여기 모인 각종 전시물들로 문명을 재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 조직위원장 데이비드 프랜시스는 개막 선언을 통해 이같이 외쳤다. 그의 발언은 1851년 대영제국에서 시작된 세계박람회와 신기술과 신문명의 전시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세계박람회는 첨단 신기술이 첫 선을 보인 무대였다. 가장 풍성한 신기술을 쏟아낸 것은 1939년 뉴욕박람회로 로봇과 TV, 에어컨, 전자계산기, 나일론이 처음 등장했다. 그레이엄 벨은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에서 직접 전화

엑스포의 역사는 랜드마크의 역사이기도 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에펠탑은 1889년 파리박람회장의 입구였다.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지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는 '홍황한 새장' 같다고 혹평했고, 모파상은 에펠탑을 보지않기 위해 아예 매일 에펠탑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 때 해를 든 오른

팔만 전시된 후 2년 뒤인 파리박람회 때 머리 부분이 선보였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랑스 선물인 여신상이 뉴욕 리버티섬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것은 10년만인 1886년이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3일간의 대장정에 들

어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음향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스카이다이브 파이프 오르간, 환상적인 해상무대인 '빅오'는 벌써부터 여수박람회의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첨단 신기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제 여수로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93일간의 축제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